철학의 문을 여는 새로운 가능성

빌헬름 봐이쉐델 지음 「철학의 뒷계단」

적지 않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막상 '철학'이란 학문을 접하게 되면, 이내 당황하기 마련인 것이 오늘날 우리네의 현실이다. 그래서인가? '이것은 나의 철학입니다'라고 신념을 갖고 말하는 사람이 드문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실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 순간이란 단 한 순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단지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결코 철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이 반증되고 있는 데도 말이다.

철학(philosophia)이란 단어의 라틴어 원래의 뜻이 知, 곧 앎에 대한 사랑인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조금이라도 지혜에 대한 탐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곧 철학자인 셈이다. 철학이 이처럼 사람들에게 생소하게 된 원인은 철학 그 자체에 있거나 혹은 철학하는 사람들(철학자)에게 있을지도 모르겠다. 일단 '그것은 너무 어렵다'라는 선입견을 낳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쓰이는 용어조차도 어렵고 생소해서 아예 이방인의 출입은 금지시켜 놓을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철학이란 學은 너무나 심오한 듯해서, 그것을 해설한 책의 해설서들마저도 끝없이 쌓여가는 지경이니 그 어떤 용기있는 자가 덤벼볼 것이며, 언감생심 일상인들이야 발이라도 들여놓을 수가 있었을까?

철학이 이런 저런 이유들로 경원시되는 마당에 철학의 문을 여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한권의 번역서가 소개되어 반갑다. 빌헬름 봐이쉐델의 「철학의 뒷계단-대철학자 서른 네 분의 일상과 사상」(연효숙 옮김, 분도출판사)은 서양철학의 대표적인 철학자 34명을 간추려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그들의 일상사에서부터 그들의 사상을 추적해가는 색다른 방법으로 서양철학사를 정리해 낸 한권의 책이다.

"뒷계단은 장식이 없으며 어떠한 왜곡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때때로 보다 일찍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제목설명이 암시하듯 저자는 철학을 집에 비유해서, 이론적인 개괄에 치중하는 전통적인 것은 앞계단을 이용해서 정문으로 집에 들어가는 것이고, 자신이 시도한 것은 뒷계단을 이용해서 뒷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어떤 방식으로나 집에 들어가는 목적은 성취될 수 있으며, 다만 그 방법이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 저자의 희망에 찬 새로운 시도는 일견 성공한 듯이 보이며, 읽는 이에게는 재미까지도 더불어 안겨준다. 더구나 이 책을 소화해내는 데 있어서 어떤 지적인 기반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어서 일상인들을 철학의 집안으로 초대하는 유쾌한 초청장의 구실을 능히 할 만한 책이다.

윤원흥

서울 구로구 시흥동 3-198 · 회사원

박구홍의 「부론토 자우르스」

박구홍의 소설 「부론토 자우르스」는 발상의 신선함 때문에 매력적이다. 액자소설의 구조를 지닌 이 작품은 윤모후 일병의 탈영을 계기로, 그의 가계의 내력 및 거기에 얽힌 그의 성장과정과 그가 남긴 이야기-중생대 초식공룡 부론토 자우르스의 멸종과 새로운 종 델타테리쥼의 번성-가 전개된다. 독립된 이야기인 브론토 자우르스 소멸기에는 '힘센꼬리', '굵은발', '녹색의꿈', '현명한눈' 등의 공룡이 등장한다. 공룡들의 세계가 어떤 신성함, 순수함을 내포하고 있는 신화적 세계라면 포유류의 일종인 델타테리쥼의 세계는 세속적이며 이기적이고 무자비한 조직세계이다. 피할 수 없는 생태계의 변화 때문에 힘센꼬리나 현명한눈, 굵은발의 대항에도 불구하고 굵은발이 어딘가 살아남아 있다는 전설만 남긴 채 델타테리쥼만 번성하게 된다. 두 상반된 세계의 속성 대비를 통해 이 이야기는 상징성과 비장한 톤을 지닌다.

한편 독립투사였던 아버지, 남보다 뛰어난 힘과 격한 기질을 지닌 형, 모후, 어머니, 누이로 구성된 윤모후 일병의 가계는 아버지로 상징되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 집안이다. 윤모후는 형의 방랑자적 삶과 돌연한, 그러나 운명적 죽음을 통해 그의 가계의 상징성을 물려 받는다. 굵은발 일가와 윤모후 일가는 냉혹한 현실의 질서에 의해 몰락해가는 외면적 유사성 뿐 아니라 그 내면의 상징적 유사성으로 인해 깊은 연관을 맺고 있으며, 두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로 읽힐 수 있다. 작가는 두 가계의 비극적 몰락을 통해 신성하고 영웅적 삶을 용납하지 못하는 현대세계의 무자비함, 전체주의적 속성, 조직의 폭력을 비판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남보다 더 큰 용기와 힘을 가진 인물(동물)이 자신의 영웅성, 순수함을 고수하려 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 운명을 낭만적으로 그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윤모후 일병의 실종을 우리사회의 전체적 속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군대라는 조직사회에서 발생하게 함으로써 설득력과 상징성을 획득하고 있으나, 중학교 3학년까지의 윤모후의 성장과정과 그 이후의 성장과정이 단절되어 있거나, 군대라는 조직세계의 구성원들이 겪는 내적 갈등을 무시함은 이 소설의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공룡의 소멸이라는 생물학적 사실을 비극적 상징성으로 끌어올린 발상의 대담함과 신선함, 나에게 대단히 매력적으로 다가온 굵은발의 생생한 형상화, 델타테리쥼의 세속적, 파괴적, 자기 모순적 속성과 현대사회의 비인간화, 전체주의적 속성 등과의 대비는 이 소설의 미덕으로 남으리라. 끝으로 윤모후가 실종됨으로써 일상사에 매몰된 세속적 인간들이 자신의 삶을 반추하게 되고, 굵은발의 실종이 델타테리쥼에게 살아있는 공룡에 대한 전설을 남기지만 이러한 낭만적 세계관의 순수성은 리얼리티의 결여라는 짐을 지게 된다.

박헌호

서울 동대문구 이문2동 257-657 17통8반

김신의 「풀잎나희」

"그러나 보라. 얼마나 신기한가. 도시는 마을보다도 자연보다도 더 신기하다. 이제 돌아갈 수도 없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행복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하지마. 동굴 속에서 사슴 바베큐나 뜯으며 구릉, 호수에 떨어지는 빗방울이나 진종일 보아야 한다면 견딜 수 없어. 호모 사피엔스는 도시를 만드는 데까지 왔어. 이제는 우주 공간에 도시를 만드는 데까지 간다구."

얼핏 보면 도시 예찬 같기도 하고 또 달리 생각하면 도시 한가운데에 속해 있으면서 도저히 빠져나갈 재간도 없기 때문에 만족해 버려야만 하는 견딜 수 없는 한계를 나타낸, 희망을 가장한 회의 같기도 한 귀절이다. 이런 묘한 분위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감돌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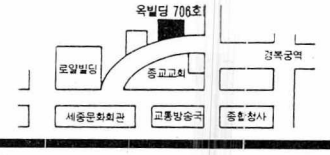
"한솔과 손잡으시면 편집자 10명을 얻는 셈입니다!"

❖제 작 대 행 : ❶일손이 달리신다구요? 대신 뛰어 드리겠습니다.
❷원고가 있으시다구요? 책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CONVERSION (변환) : PC로 입력한 디스켓만 가져오시면 편집상태인 교정→인화→필름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원 고 은 행 : 출판 원고접수, 출판 원고 지원해 드립니다.

한솔기획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4번지 옥빌딩 706호
TEL : 735-4997 FAX : 739-8791



묘한 소설이 있다.

「대학별곡」이란 장편소설과 함께 우리에게 잘 알려진 김신의 세번째 장편소설인 「풀잎나희」(들꽃세상)가 그것이다. 줄거리라고 명명하기에는 좀 껄끄러운 이야기 자체는 간단하다. 20대 젊은이들인 유빈, 나희, 수진, 찬호, 성배, 충민, 은영 등의 젊은날의 방황 혹은 삶의 혼동스러운 상태 등의 그런 얘기들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매사에 충동적이다. 필수조건이라면 재미가 첨가되어야 한다는 것뿐. 그러니까 재미있을 법하면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 일인 셈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건 쉽게 결정할 뿐 아니라 또 그만큼 쉽게 행동한다.

물론 그 다음이란 모른다.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니까. 과거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미래에 대한 기대나 희망도 없다.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여기에 무슨 고리타분한 윤리니 가치관이니 하는 것이 필요하겠는가? 그런 것 없이도 잘(?) 해왔는데.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기조차 힘들어 하는 성관계조차도 일회적이고 기분에 따라서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충분히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풀잎나희」는 혼란스럽다. 그러면서도 아득한 것은 분명 혼란스러운 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습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진다거나 이질적인 모습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저 시내 한복판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을 뿐이다.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의중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꼬집어내기는 어렵다. 혼란스러움 때문에. 단지 남겨지는 것은, 꿈과 희망에 찬 미래에 부풀어 있어야 할 우리의 젊은이들이 왜 미래를 상실한 듯이 행동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뒤섞인 씁쓸한 여운뿐이다.

강순옥

서울 관악구 신림4동 501-8 · 회사원

「책 읽어주는 여자」

얼마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극의 내용과 구성의 견고성 여부를 떠나, 그 제목이 제공하는 사고의 공간을 꽤 넓게 느꼈었는데, 불란서의 작가 레몽 장이 쓴 「책 읽어주는 여자」를 접하면서, 독자는 또다시 그 공간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된다. '외모'로만 따지자면 우선 이 소설은 대작일 수 없다. 물론 번역을 맡은 김화영교수의 뛰어난 옮김 때문에 읽는 괴로움을 면할 수 있지만, 이 작품은 섬세한 면과 새로운 형식미를 동반한 다듬어질 부분만 골라 다듬어진 조각 같은 인상을 풍긴다.

독서라는 지극히 무감각해진 인간행위를 소설의 소재로 찾아낸 작가의 신선하고도 주의 깊은 사색의 결과와 함께, '현대여성의 삶은 과연 무엇으로 채워지는가'라는 질문이 「책 읽어주는 여자」의 뼈대이다. '무자식'의 삼십대 주부로 직업없이 살아가던 중산층의 여자가 '책을 읽어준다'는 신종직업을 선택해, 나름대로 올바른 삶의 비상구로 삼으려 하지만 끝내 실패하게 된다는 단순한 이야기를 줄거리 삼아 꾸며진 이 소설은 유머와 에로티시즘이 주는 '재미'를 양념으로 독특한 맛을 낸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영화화돼 호평을 받았다고 알려진 이 소설은, 그러나 문화와 사상, 그리고 삶의 형식이 다른 한 외국여인의 '일상 탈출기'라는 것에 앞서, 본질적인 여성의 삶에 대한 의문부호를 남겨준다.

경제적 편안과 가정적 안온 등 보편적 행복의 조건(?)이 갖춰진다 해도, 혹은 그런 것이 성취되지 않는다 해도, 여성은 완전해 하지 않는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억압되었던 여성의 삶이 짧은 시간에 급변했다거나, 그보다 더 그럴싸한 수식으로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만족되지 않는 의문의 빈 곳을, 우리는 책 읽어주기에 실패한 여자 마리 콩스탕스를 만나면서 절감케 되는 것이다.

김옥희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주교리 599-8

「철학교과서 1.2」

페레스트로이카로 상징되는 소련 사회주의의 변화는 소련내 철학계에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소련 철학자들의 고뇌를 엮어 놓은 두 권의 책에서 우리는 소련 국민들의 고뇌와 소련사회의 앞날을 미루어 볼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하게 된다.

스탈린시대 이래 소련의 철학계가 '생기 발랄한' 창조 대신에 '화석화된' 교조를, 삶의 본질문제 대신에 고리타분한 경전암송을 우위에 두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철학적 사유의 정체상황과 소련식 사회주의 내부의 문제점을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은 더 이상 부르주아적 상상력이라 매도될 수 없는, 어떤 근거를 확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프롤로프를 대표집필자로 하여 씌어진 이 책의 이곳저곳에서 우리는 기존 소련 철학교과서에서는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몇가지 주제와 만나게 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인간의 문제이다. 그 다음 중요한 문제는 실천의 문제이다. 인간의 문제는 철학사에 해당되는 제1권의 전편에 투영되어 있으며, 제2권 9장에서 본격적으로 고찰된다. 실천의 문제는 제2권 10장에서 특별하게 취급되어 있다. 1950, 60년대 후르시초프에 의한 스탈린 격하의 물결 속에서 등장했던 동구 사회주의권의 인간적 사회주의 철학자들 내지 실천철학파들에게 가해진 온갖 물리적, 철학적 고문들을 상기해 볼 때, 소련 공산당 공식 철학교과서에서 인간과 실천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진다는 것은 금석지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다. 혹은 고문자들의 피고문자로의 전향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일이다.

전체적인 구성에서도 특별히 신선한 느낌을 받게 된다. 제1권의 철학사 서술은 기존의 관념론/유물론, 변증법/형이상학의 교조적인 틀에서 일정한 변화를 추구하려는 노력의 소산이다. 이는 관념론이나 유물론의 문제, 변증법이나 형이상학의 문제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 부딪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포괄할 수 없음에 대한 일종의 자기고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2권은 기존 철학체계에서는 소위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불리던 부분인데, 이곳의 서술 또한 대단히 생기발랄하다. 특히 6장 '물질'과 8장 '자연'에서 다뤄지고 있는 현대 자연과학에 대한 논의와 '생태론'적 접근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제3권의 출판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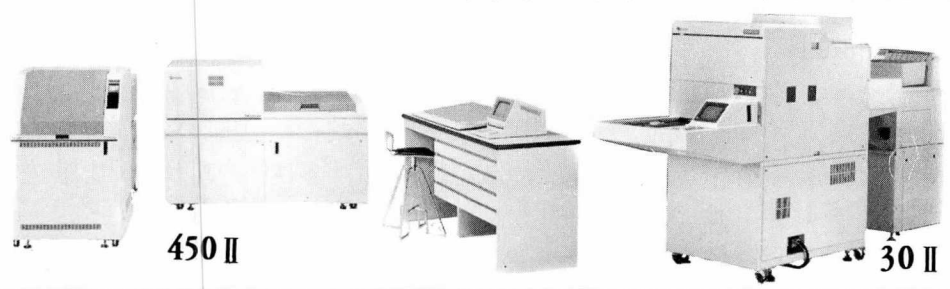
김정관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97번지 · 회사원

단색 SCANART 450Ⅱ—국반절 Size 초스피드 실현

"편집자의 창조력에 보답하는 製版시스템"

○ 인공지능을 내장한 Hi-Tech제판라인은 시간경쟁의 추종을 불허.
○ 초고속 · 정밀도로 시간낭비와 인력소모를 배제합니다.
○ 네거티브 가격으로 포시티브제판을 봉사해 드립니다.



※ 시간약속은 금, 정밀은 신용! 믿고 맡기십시오!!

- 국내 최대 Size(국반절) 입출력
- 고속스캐닝으로 대량 신속처리
- 멀티 디지탈 씨스템으로 작업효율 향상
- 두꺼운 원고 자유자재 입력
- 토탈편집 기능으로 더욱 선명한 화질

우성사 서울시 · 중구 충무로4가 56-1 (신도빌딩 2층)
TEL:272-2864 · FAX:275-7016